

만성질환자수 136만명 육박 “복용자 관리강화 방안 필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0년 대비 약 46% 증가
주상병 당뇨·고혈압... 30% 차지



이처럼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20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 또한 75~84세였다.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수가 올해 상반기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1700여 명으로 지난 2020년 93만2700여 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가 3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65~74세 30.5%, 85세 이상 15.7%, 55~64세 13.3%, 45~54세 4.0%, 45세 미만 1.4% 순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분위별로는 9~10분위 30.9%, 1~2 분위 25.4%, 7~8 분위 18.5%, 5~6 분위 14.9%, 3~4 분위 8.5%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득 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다만 소득 수준이 낮은 9~10분위는 올해 지난 2020년 대비 감소한 반면, 소득 수준이 높은 1~2 분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17.9%에서 25.4%로 급증했다.

아울러 10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보유한 주상병은 당뇨

병과 고혈압이 30%대 이상의 비율을 기록했다. 당뇨병은 37.3%, 고혈압은 34.3%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릎관절 증 27.5%, 만성요통 24.5%, 만성위염 24.3%, 시력감퇴 23.4%, 만성심질환 15.9%, 알레르기 15.8%, 전립선비대 증 15.4%, 치매 14.7% 순으로 드러난 점도 눈에 띄었다. 특히 2020년과 비교해서 치매의 비중은 12.7%에서 14.7%로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 약물 간 상호 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원은 “노인의 경우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다제약물 관리 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DUR과의 연계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일 본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대서울병원, 로봇수술 5000례 달성

문혜성 센터장, 최다 수술기록 유지

이대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가 문을 연지 5년 반 만에 수술 5000례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병원 중 전례 없는 빠른 속도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일 본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로봇수술 5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대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최첨단 단일공 로봇수술이 가능한 다빈치 SP 시스템을 국내에서 두 번째로 도입하며 로봇수술의 트렌드 변화를 주도해 왔다. 세계 최초로 다발성 자궁근종에서 단일공 근종 절제술을 시행했고 단일공 방광절제술, 단일공 대장암-간전이암 동시 수술 등 국내 최초의 기록을 썼으며, 단일공 유착성 자궁내막종

절제술, 비장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각종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특히 문혜성 로봇수술센터장은 올해 초 로봇수술 2000례를 돌파하고 지난해 7월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해 현재 이 분야 최다 수술 건수 보유자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과 함께 이대목동병원도 최근 로봇수술 5000례를 비슷한 시기 돌파를 하면서 이화의료원은 로봇수술 1만례를 달성하게 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부인과 로봇수술의 진화 및 비뇨의학과, 외과의 첨단수술 기법을 발표하며 축적된 수술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이대서울병원의 로봇수술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을 진행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유럽 의약품청 ‘CT-P55’ 3상 신청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인터루킨 억제제’ 파이프라인 확대
스테키마 등 글로벌 시장 공략 박차

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영역에서 ‘인터루킨 억제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맵) 바이오시밀러 ‘CT-P55’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유럽 의약품청이 관리하는 임상시험정보시스템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상에서 셀트리온은 관상형 건선 환자 총 375명을 대상으로 CT-P55와 오리지널 의약품 코센틱스 간의 유효성, 안전성, 동등성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해당 임상에 대한 IND를 이미 승인 받았다.

또 셀트리온은 지난 2023년 12월에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로부터 CT-P55 임상 1상 IND 승인을 획득하기도 했다. 현재 셀트리온



셀트리온 2공장 전경

은 건강한 일본 성인 171명을 대상으로 CT-P55와 코센틱스 간의 약동학적 동등성을 비교 연구하는 중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CT-P55는 인터루킨 억제제로, CT-P55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코센틱스는 인터루킨-17A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은 인터루킨-12, 23 억제제인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맵)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

전처로부터 스텔라라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이후 캐나다, 유럽, 영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로 스텔라라 허가국을 속도감 있게 확장했다. 아울러 스텔라라 품목허가는 관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 오리지널 의약품의 주요 적응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올해 2월 국내에서 약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맵) 바이오시밀러 ‘CT-P47’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셀트리온은 CT-P47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약템라가 한국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인 류마티스 관절염, 거대세포 동맥염,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약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억제제다.

한편 셀트리온은 후속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LG생활건강, 베비언스 ‘베이비 고보습 크림’

LG생활건강이 ‘베비언스 센서티브 베이비 고보습 크림(사진)’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2년 베이비&키즈 전문 브랜드로 베비언스를 공개하고 이후 아기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섬유 관리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



은 소아 대상 인체적용시험으로 검증된 72시간 보습 지속력을 갖췄다.

특히 피부 유사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보습 장벽을 강화하고 아기의 피부를 보호하는 등 피부 내 수분의 증발을 막는다.

/이청하 기자

에스티젠바이오, 美 FDA ‘cGMP’ 인증

(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하반기 ‘DMB-3115’ 생산 계획

동아쏘시오그룹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회사 에스티젠바이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원료의약품(DS), 사전중전형(PFS) 주사제 등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 우수한 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승인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스티젠바이오의 송도 바이오 공장 은 앞서 지난 9월에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우수의약품 품질관리 기준(GM

P) 심사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23년 7월과 10월 각각 유럽과 미국에서 ‘DMB-3115’ 품목허가 신청이 완료되면서, 에스티젠바이오는 DMB-3115 제품 생산을 위한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에스티젠바이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DMB-3115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DMB-3115(성분명: 우스테키누맵)은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로, 관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FDA에서 DMB-3115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에스티젠바이오는 바이오 의약품 3대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시장에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DMB-3115 상업화 생산이 본격화되면 에스티젠바이오는 대형 품목을 내놓음으로써 고객사 추가 유치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원씽 ‘시카 B5 라인’ 4종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은 자회사원 씽에서 ‘시카 B5 라인’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씽 시카 B5 라인은 스킨케어 단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토너, 세럼, 크림, 마스크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 모두 어린 병풀잎, 병풀뿌리, 병풀 단백질, 병풀 세라마이드, 3-테카 등 5가지 시카 성분과 비타민 B5를 함유하고 있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토너, 세럼, 크림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제품 사용 후 피부 장벽 개선·피부 진정·열감 진정·피부결 개선 등에 대한 효과를 확인받았고 민감한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피부 자극 테스트를 거쳤다.

마스크 제품의 경우 얇고 부드러운 비건 시트와 산림인증제도 FSC 인증을 획득한 단상지를 사용해 친환경 제품으로 완성됐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스킨유 ‘딤머스크 바디오일’

아모레퍼시픽이 고급 바디 관리 브랜드 ‘스킨유’에서 신제품 ‘딤머스크 바디오일’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스킨유 ‘딤머스크 바디오일’은 피부결과 탄력을 강화해 주는 제품이다. 7단계 공정을

거친 스페인산 해바라기씨오일을 35% 함유하고 있고, 호호바오일과 녹차씨오일을 담은 식물성 오일이 피부에 걸들지 않고 빠르게 흡수된다. 깊고 은은한 머스크향이 더해진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